팬데믹 시대 사회적 주변화와 불평등의 연결고리

후안 파블로 페레스 사인스
코스타리카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원제와 출처: Juan Pablo Pérez Sáinz, "Marginación social y nudos de desigualdad en tiempos de pandemia", *Nueva Sociedad*, No. 293, mayo–junio de 2021, pp. 63–76.

핵심어: COVID–19, 불평등, 사회적 주변화, 라틴아메리카

사회적 주변화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국가로부터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무시되는 세계로써 극단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상적인 틀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 심각한 보건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상이한 유형의 불평등들이 어떻게 주변화의 조건 하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 하위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이다. 하위 계층은

팬데믹에 보다 많은 피해를 입는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이 계층이 동반되는 질환인 소위 비전염성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COVID-19로 유발된 현재의 팬데믹은 건강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명확한 계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본 글에서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취하였던 조치들로부터 유래한, 특히 현재 위기의 "쇼크 순간"을 잘 대변하는 격리 조치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불평등 및 새롭게 나타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인 분석적 도전은 이러한 사회적 붕괴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사회적 주변화의 세 가지 차원, 즉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결핍과 탈시민화, 그리고 비가시화의 측면에서 사회적 붕괴 현상들을 살펴볼 것은 제안한다.[1]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간 연결고리의 구성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분석적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주요 조치였던 격리는 이 시기 동안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생식계의 활성화를 상정하였다. 생존 전략의 비록 오래 되었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 영역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석적 단위들을 구분해야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다.[2] 즉 주택 및 그 주택을 둘러싼 환경을 지칭하는 거주지, 친족 관계에 기반 한 가족,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재

1) J.P. Pérez Sáinz, *La rebelión de los que nadie quiere ver. Respuestas para sobrevivir a las desigualdades extremas en América Latina*,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9.

2)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서지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단위로써의 가정 이 세 가지를 우리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관점의 조합은 다음에 제시한 표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 표는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비대칭을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렬해 놓았다.

이 표로부터 우리는 영역 연결고리, 젠더 연결고리 그리고 노동 연결고리라는 세 개의 불평등의 연결고리들을 식별할 수 있다. 각 연결고리는 몇 개의 셀을 포함하며 이 셀들 중 어떤 것들은 하나 이상의 연결고리에 속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연결고리들이 완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각각의 연결고리들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며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주변화의 미래가 팬데믹 이후 어떻게 될지 그 형세의 윤곽을 그려보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표-1] 팬데믹 상황 속 사회적 주변화의 불평등 매트릭스

사회적 주변화의 차원	재생산의 분석 단위		
	주택	가족	가정
결핍	주택 부족	여성 주도권의 취약성	임금 불안정의 증가
	축소된 연결성 (재택근무 및 재택수업)		여성 및 청년 실업
			자영업의 위기
탈시민화	국가의 주변적 존재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감금	국가 지원에 있어 현금성 자산 이용의 성행
	인간에 의한 공공장소의 상실		여성의 역할과 여성지원 네트워크
비가시화	파편화의 심화	가정 폭력의 증가	가사 노동의 증가

영역 연결고리

영역적 측면에 있어서 팬데믹은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과 불평등을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리, 보호, 거리두기를 요구하였고 파편화를 재확인하였다.[3] 이런 의미에 있어 이 연결고리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현상은 격리가 영역 파편화의 논리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주택에서의 자가 격리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였던 주택 부족현상이 명확해졌고 새로운 영역적 불평등이 더해졌다.

개별적 격리로 인해 주택이 사회적 삶의 중심지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주택 부족현상은 전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많은 하위주체 부문에 있어 주택은 더 이상 잠을 자고 원기 회복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 되지 못하였다. 팬데믹이 야기한 가장 민감한 부족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가장 소득이 높은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의 4%가 위생 시설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고 3%는 상수도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가장 소득이 낮은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에서는 각각 25%와 11%로 상승한다.[4] 다른 한편 우리는 주택 과밀화 현상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5분위 가구들에 있어서 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1분위 가구들의 10%는 이 문제를 겪고 있다.[5]

물리적 격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통신에 의해 상대화될 수 있지만

3) 3. Ramiro Segura, "Fragmentación, interdependencia y convivencia. Notas para renovar una agenda urbana en crisis (después de la crisis)", en Enrique Ortiz Flores et al., *Múltiples miradas para renovar una agenda urbana en crisis*, Clacso, Buenos Aires, 2020.

4) Gabriela Benza y Gabriel Kessler, *La ¿nueva? estructura social de América Latina. Cambios y persistencias después de la ola de gobiernos progresistas*,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20.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들의 대부분은 수입의 차원에서 다룬다. 이런 의미에 있어 1분위 가구가 주변화의 조건 하에서 대략 하위주체 부문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5) G. Benza y G. Kessler, *ob. cit.*, cuadro 3.3.

라틴아메리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구의 절반이 소득 분포 1분위 및 2분위 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6] 이 지점에서 주택과 지역의 연결성이 작동하는데 이는 고용 및 교육 측면에 있어 현재 팬데믹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불평등을 표현한다.

사회적 불균형은 연결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주변부 세계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종사하곤 하는 일반적으로 비숙련 노동 유형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도 표출된다. 따라서 평균 급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자들은 극소수만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지만 5분위 가구의 경우 그 수치는 70%까지 상승한다.[7] 원격 수업의 경우 여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들[8]의 라틴아메리카 10개 국가 평균값을 산출해 보면 5분위 가구의 평균값과 1분위 가구의 평균값의 격차가 우루과이는 1.6, 콜롬비아는 2.0, 페루는 2.1로써 그 분포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사 대상이 된 10개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분위 가구의 94%가 학교 과제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98%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오직 24%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45%만이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9] 말하자면 COVID-19로 인해

6)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Universalizar el acceso a las tecnologías digitales para enfrentar los efectos del COVID-19", *Serie Informe Especial COVID-19*, No. 7, 2020, p. 3.

7) Matías Busso y Julián Messina, "La desigualdad en tiempos de crisis: lecciones de la crisis de la COVID-19", en M. Busso y J. Messina (eds.), *La crisis de la desigualdad.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 la encrucijada*, BID, Washington, DC, 2020; Jürgen Weller et al., "El impacto de la crisis sanitaria del COVID-19 en los mercados laborales latinoamericanos,, LC/TS. 2020/90, CEPAL, Santiago de Chile, 2020.

8) 책상, 학생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한 컴퓨터, 인터넷 연결 그리고 과제를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들과 같은 것들을 기본 요소로 상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9) Julián Cristia y Xiomara Pulido, "La educación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egregada y desigual", en M. Busso y J. Messina (eds.), *ob. cit.*, gráficos B7.1.2 y B7.1.3.

디지털 불평등과 노동 및 교육 불평등이 결합되고 상호 강화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역 연결고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회적 세계가 국가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가 약화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폭력 행위자가 나타나 이 주변부 영역을 통제하고 국가가 수립한 법체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명령을 법으로 포장하여 이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며 사회 생활을 위한 필수품들의 독점적 공급을 통해 이를 적법화하는 데 용이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특정 폭력 행위자의 이와 같은 필수품의 독점적 공급 행위가 격리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의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사회 조직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주택 월세 체납으로 인한 기본 주택 서비스의 단절을 금지하거나 임대료 지불 조건 혹은 식량 분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등과 같은 몇몇 조치들은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에서 국가의 존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영역적 연결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연결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현금 지급을 통한 통화 연결은 조건적 이체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에 형성되어있던 제도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10]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기에 긍정적이며 우

10) 코넬 대학교와 미주개발은행이 2020년 4월 말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40% 이상이 기아를 경험하였다. Nicolas Bottan, Bridget Hoffmann y Diego A. Vera-Cossio, *La desigual carga de la pandemia: por qué las consecuencias de la COVID-19 afectan más a los pobres*, BID, Washington, DC, 2020, p. 36

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국가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소득의 도입을 기획하였다.[11] 조건부 현금 지급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ECLAC이 제시한 최소 소득의 도입과 같은 전면적 현금 지급이 보편적 기본 소득의 확립을 향한 첫 번째 단계를 상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권리의 수립, 따라서 시민권, 특히 사회적 시민권의 강화를 의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12] 만약 이러한 유형의 시민 소득이 현실화 된다면 사회적 시민의 기반에 대한 심오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의 연결고리의 핵심은 팬데믹이 도시 영역 간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 현상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다른 부문에 있어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비가시화 현상을 촉진시켰다. 부수적으로 특정 중상류층은 격리 정책을 통해 이전의 격리 전략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에 의해 부과된 삶의 리듬이 가져 온 현기증에 대한 저항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주거지, 즉 자신의 집에서의 격리를 강조하는 근접 전략을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리듬에 지치고 파편화된 개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이라는 고도의 연결성을 가진 두 요소를 결합시켜야

11) CEPAL, "El desafío social en tiempos del COVID-19", *Serie Informe Especial COVID-19*, No 3, 2020.

12) 지구적 북반구 국가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토론의 단계를 넘어 정책 분야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편적 기본 소득이 정책적 수단으로 간주되게 된 데에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이 자연스럽게 이 정책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Ricardo Dudda, "La Gran Reclusión y el futuro del capitalismo", en *Nueva Sociedad*, No. 287, mayo-junio de2020, disponible en 〈www.nuso.org〉.

했다.[13] 여기에 현재의 위기로 인해 가사 서비스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의 단절을 추가해야 한다. 이들의 부재는 이들을 고용했던 가정들이 하위 계층 내부에서 팬데믹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최상의 경우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를 계속 무시하거나 이미 알려진 편견과 오래된 낙인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연결고리

젠더 연결고리에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닻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취약성이다. 이런 유형의 가족은 사회적 주변화 세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족 구성 유형 측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한 부모 가정의 증가이며 이 가정들 중 대부분이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4]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는 가사 노동을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여성에게 더 많이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의해 기존의 가사 노동 외에 새로운 가사 노동이 추가되면서 남녀 간 성적 분업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젠더 연결고리의 일차적 차원이다.

얼마 전부터 돌봄 문제가 가지게 된 최고의 중요성이란 틀 속에서 가사 노동의 가시화가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젠더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

13) Alicia Lindón, "Cotidianidades territorializadas entre la proxemia y la diastemia: ritmos espacio-temporales en un contexto de aceleración", en *Educación Física y Ciencia*, No. 13, 2011.

14) G. Benza y G. Kessler, ob. cit., pp. 37-39.

가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사 노동의 개념보다 더욱 그 폭이 넓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 노동에 세 배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러한 성의 불평등은 계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1분위 가구 여성들은 5분위 가구 여성들보다 39%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15] 이러한 현실 뒤에는 가사 서비스 고용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로 인해 이 상황은 바뀌었다. 즉 고소득 가구에 속한 여성들 역시 격리 정책으로 인한 가사 노동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로 인해 미성년자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집에 머물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 증가하였다.[16] 환언하면 현 상황에서 돌봄의 위기[17]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하위 계층에서 이 돌봄의 위기로 인해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 혹은 매우 높은 수요는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구에게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인 반면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에서 이 문제는 그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18]

가정과 가족의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에 투영되는 가사 노동의 또 다른 차원은 비금전적 지원 네트워크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주변화의 문맥에 있어,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상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15) Rosa Cañete Alonso, "Las desigualdades de género en el centro de la solución a la pandemia de la COVID-19 y sus crisi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 *Análisis Carolina 20/20*, Fundación Carolina, Madrid, 2020, pp. 4-5.

16) Ibid.

17) Karina Batthyány, "La pandemia evidencia y potencia la crisis de los cuidados", *Serie Pensar la pandemia. Observatorio Social del Coronavirus*, No. 1, Clacso, Buenos Aires, 2020.

18) Camila Arza, "Familias, cuidado y desigualdad", en CEPAL, *Cuidados y mujeres en tiempos de COVID-19. La experiencia en la Argentina*, LC/TS.2020/153, CEPAL, Santiago de Chile, 2020, gráfico 7.

차원에서 남녀 간 성 구분을 재생산 하면서 가사 노동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을 상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주도적 역할은 "모성화"와 대중성을 융합하며, 어떤 특정 형태의 "모성화"는 생존을 위한 노력이 어떤 집단적 차원을 획득할 때 여성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을 명확히 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권에서는 검역 이후 지역 사회 조직들의 중요한 재활성화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있다.[19] 이와 관련하여 세 개의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첫째는 규제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 사회 차원에서 공공 정책의 영향력을 향상시킨 정치 제도적, 정치 영역적, 개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다. 둘째, 기아의 위협에 직면하여 음식을 보장하고 조직들의 교육 및 문화 업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특히 노년층들의 건강관리는 사회공동체적 실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다시 말해 "돌봄의 영역적 기반시설"로써 평가되는 것은, 즉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돌봄의 조직 구조를 표현하는 이것은 그 정치 조직적 가치, 자제의 가치 그리고 지역 사회 건강의 가치에 의해 두드러졌던 것이다.[20]

영역 연결고리로부터 제기되는 또 다른 의문점은 가정 내 폭력에 관한 문제다. 자가격리로 인해 이 현상은 놀랄 정도로 증가하였는데[21] 여기에는 공간적 격리와 연관된 두 개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주거 공간의 과밀화는 혼자 차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를 초래하였기에 일상적

19) Pablo Vommaro, "Juventudes, barrios populares y desigualdades en tiempos de pandemia", en Enrique Ortiz Flores et al., ob. cit.

20) Anaïs Roig, "Enlazar cuidados en tiempos de pandemia. Organizar vida en barrios populares del amba", en CEPAL, *Cuidados y mujeres en tiempos de COVID-19. La experiencia en la Argentina*, cit.

21) 즉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신고가 칠레에서는 100%, 멕시코에서는 60%, 아르헨티나에서는 40%, 콜롬비아에서는 90% 증가하였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여성 살해사건이 3배 증가하였다. Carmen Pagés et al., *Del confinamiento a la reapertura. Consideraciones estratégicas para el reinicio de las actividad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 el marco de la COVID-19*, BID, Washington, DC, 2020, p. 15.

교제에 있어 불화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장소에 자주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생활에 대부분 익숙한 남성들에게는 더 동화되기 어려운 박탈감을 형성한다.[22]

가정 폭력은 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부여하는 비가시성으로 인해 보다 용이해진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사회적 주변화의 맥락에서 이 비가시성은 사회적 주변화 세계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이 세계의 근원적 차원 중 하나를 구성하는 "은폐"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주변화되고 소외된 부문에서 상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주변화와 연관된 현상인 여성 가장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폭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가정 폭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이 정한 규칙을 부과하는 폭력 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에서 이들은 공동체적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족 내 갈등 그리고, 혹은 이웃 간 갈등의 통제도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 폭력 행위자들의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 기관들의 영역에 있어서 이들이 갈등 해결을 회피하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23]

셋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파국적이며 심지어는 거의 종말론적인 묵시적 의미로 인해 종교성의 발전과 심화에 호의적인 종교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사회적 주변화 세계에서

22) R. Cañete Alonso, ob. cit., p. 9.

23) 폭력 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젊은 여성은 다른 영역의 젊은 남성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들은 "영역적으로 납치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오순절주의[24]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파블로 세만(Pablo Semán)은 이와 같은 유형의 종교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생활의 재구성, 약물 및 음주 문제 극복, 젊은 층의 폭력적 행위 감소와 같은 "기적"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힘들었던 일상생활에서 가시적인 향상이 있었기에 (신)오순절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5] 이런 의미에 있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가정 내 폭력의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이러한 "기적"의 역학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젠더 불평등 연결고리의 핵심은 여성을 팬데믹이 부과한 재생산의 영역 내부에 새롭게 감금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2의 페미니즘 물결"로 명명되는 표현 중의 하나인 "대중 페미니즘"의 출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위 주체 여성들에 의해 발전된 재생산 행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미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 자리매김을 하였다.[26] 이 점에 관해서는 1980년대 위기 이후부터 여성이 획득한 노동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진다. 즉 여성은 남성 고용의 위기가 도래하였던 노동 시장에서 형식적 고용의 중심성이 상실되자 적극적으로 고용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COVID-19로 촉발된 팬데믹은 노동 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24) 초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 사상으로써 성경에 대한 신뢰 및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개인의 삶의 변혁을 지향하는 복음주의 신앙(역주).

25) P. Semán, "Pentecostalismo y desigualdades sociales en América Latina", en *Encartes* Vol. II, No. 4, 2019-2020.

26) Elizabeth Maier, "Acomodando lo privado en lo público: experiencias y legados de décadas pasadas", en Nathalie Lebon y E. Maier (coords.), *De lo privado a lo público. 30 años de lucha ciudadana de las mujeres en América Latina*, Siglo Veintiuno/ UNIFEM/ LASA, Ciudad de México, 2006.

로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참가율의 감소는 유사할지라도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15년 이후로 노동 시장의 여성화가 목도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이 현상은 중단된 상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 서비스 및 학교의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노동 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7] 팬데믹 이후 여성 유급 고용이 얼마나 회복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동 연결고리

젠더 연결고리에서 고려되는 가사 노동의 증가와 함께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첫째, 임금 노동의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동력인 불안정성의 동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 근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팬데믹은 여기에 전대미문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자발적 조정이 아니다. 풀타임 근무를 상정하며 오히려 근무 시간은 더 늘어났다. 필요한 노동 자원 사용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며 여성이 더 많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현상과 결부된다.[28] 그러므로 원격 근무는 팬데믹과 봉쇄 정책의 결과로 생긴 하나의 아웃소싱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급여 불안이라는 표현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팬데믹 이후 이중적 의미에서 무슨

27) OIT, *Panorama laboral* 2020, OIT, Lima, 2020, pp. 36–37.

28) Ibid., p. 88.

일이 발생할 것이냐는 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원격 근무가 지속될 것이냐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근무 조건이 어떻게 재정의될 것이냐는 점이다.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에서 급여 보조금, 일시적 실업 기간 동안 지급하는 실업 보험 수당 지급, 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근로자 재고용 및 계약 보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급해야 한다.[29] 이런 의미에서 경제 재활성화가 공고하게 이루어지면 노동의 완전한 회복이 이전 근로 조건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 조건들이 악화되고 그 불안정성이 심화될지 우리는 또한 지켜봐야 한다.

환언하면 현재 우리는 임금 근로직의 감소가 정규직 고용 위기를 수반하였고 결국에는 노동 시장의 중심성이 상실되어 버렸던 1980년대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 세계에 있어 불안정화 과정의 심화는 근로자들의 권리 약화로 인해 가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의 이용을 미래 축적 전략의 일환으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30]

두 번째 현상은 실업의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취업 시장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 중 특히 두 그룹이 눈에 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가사 노동자들이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한 7개 국가들 중 5개 국가가 가사 서비스에 의한 직업 변동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모든 직업의 범주 중 가사 서비스업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

29) Ibid.

30) 이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플랫폼) 자본주의는 신국가 개입주의와 함께 보다 더 국가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팬데믹으로부터 출현한 사회 질서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 16.1%에서 칠레의 34.6%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였다.[31]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층이 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이 지역의 9개 국가 중 도미니카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 범위의 폭이 매우 넓다. 2020년 1, 2, 3분기 멕시코의 청년 실업률은 8%였던 반면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42.1%까지 상승하였다.[32]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여, 특히 새롭게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있어 폭력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조직범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활동의 틀 안에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의 이 같은 제안은 합법적인 청년 고용 옵션이 제한되는 경우 더욱 힘을 얻을 것이고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팬데믹의 영향이라는 측면에 있어 조직범죄 집단이 이번 위기의 승자로서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집단은 불법의 세계에서 활동해야 하는 핵심적 특성을 지닌 기업적 활동 행위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범죄 집단은 격리와 결부된 제약을 피하고 팬데믹으로 유발된 위기로 인해 부과된 제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마지막 문제는 자영업의 위기다.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7개 국가에서 자영업은 평균 8.9% 감소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4.8%, 칠레의 경우에는 22.5% 감소하는 등 국가 별로 큰 편차를 보여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7.2% 성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33]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격리 및 이동 제한 조치는 이러한 유형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31) OIT, ob. cit., cuadro 3.2.

32) Ibid., cuadro 2.5 y gráfico 2.5

33) Ibid., cuadro 3.2.

주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들 중 한계 노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업, 특히 무엇보다 자영업의 위기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이 자영업의 위기가 노동 연결고리에 있어 핵심이다. 자영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것이 노동력의 구조적 잉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즉 역사적으로 자영업은 자본이 임금 관계를 보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도시 지역의 자기 발생 고용을 반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위기와 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 1980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노동 현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인기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 통합하여 이 시장의 여성화를 유발시켰는데 이 현상은 이후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노동 시장의 이질성의 지속현상을 보여주는 비공식 부분, 특히 자영업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 두 현상은 현재의 위기 상황과는 모두 관련이 없어 보인다. 여성들은 다시 가정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강등되었는데 이것은 노동 시장의 탈여성화를 암시한다. 자영업 또한 임금 근로직과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실업이 두드러진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의 공개적인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격리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구직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잠재적 표명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펜데믹 이후 자영업이 노동 시장에서 역사적 기능을 수복할 것인지,[34] 혹은 공개된 표명에서건 비공개된 표명에서건 임시 고용과 실업 간 전환의 간헐성으로 대체될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4) 세만(Semán)은 "번영 신학"이 운명론과 자존감의 저하에 대항하는 일상적 생존의 친숙한 윤리로써 대중 부문에 의해 전유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이동을 통한 상승에 대한 환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성취와 일상적 투쟁을 위한 격려에 대한 것이다(P. Semán, ob. cit). 팬데믹 이후 이러한 행동의 효과는 특히 자영업 활동의 (재)발명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결고리들이 풀릴 수 있을까?

이 세 개의 불평등의 연결고리들의 형상은 COVID-19로 인해 유발된 현재의 위기가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도시 영역 분열의 심화, 재생산 영역으로의 여성의 새로운 감금, 노동 시장 조정 과정에서 노동력의 구조적 잉여가 지닌 중요성 상실 등으로 구분하였던 세 가지 핵심으로 종합된다. 우리가 자문해야 할 것은 팬데믹 이후 이 과정들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지이다. 약화될 것인가 아니면 강화될 것인가? 모든 것은 이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동에 달려있다. 응답은 두 층위에서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정책의 층위다. 팬데믹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과 세계를 재고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제안과 함께 상이한 이념적 지평으로부터 유래한 반성적 도취의 순간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제안이 아니라 실행이다. 즉 여러 제안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를 지닌 권력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존재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기간 동안 버려지고 무시되었던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와의 관련 하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원자재 붐이 한창이었을 때 진보 지향적인 특정 정부에서만 이 부문을 포함하고자 하는 정책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응답의 두 번째 층위로 이끈다. 비록 사회적 주변화는 심대한 권한 상실로 특징 지워지지만 완전한 권한 상실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기에 상실된 권한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권한 상실에 대하여 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사회적 주변화 세계로부터 폭력, 이민, 종교 그리고 집단행동 등의 네 가지 유형의 대응이 실행되어 왔다.[35]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대응들 중 일부가

35) J. P. Pérez Sáinz, ob. cit.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가까운 미래에 대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36]

발생하는 대응 유형에 따라 펜데믹 이후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37] 첫 번째는 낙관주의로 표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까지는 재정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제기하였던 세 개의 문제들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가 확인하였던 세 개의 연결고리들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주변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화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주변화의 세계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연결 고리들은 우리가 탐색하고 발견해야 할 지역에서 사회적 주변화라는 건축물의 새로운 기둥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현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 줄 것이다.

정동희 옮김

36) 네 개의 대응 중 이민은 국경에서의 격리 및 제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부분 이민의 흐름,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의 흐름은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신매매집단에 의해 실행될 때 이 흐름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환승 지역에 갇혀 버린 이민자들의 상황이다.

37) 연속적 성격을 가지는 네 번째 시나리오도 존재 가능하다. 이는 위기가 지나간 후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다.